

한신大學의 敎授講義評價制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①—

金 光 秀

(한신大 哲學科)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1. 한신大學의 敎授講義評價制
2. 敎授協議會·總學生會 협의 실시
3. 單科大學別 실시
4. 學科別 실시
5. 교수 個人別 실시(1)
6. " (2)

한신대학교에서는 1993년 1학기부터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한국 최초의 일로서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학사회 내에 이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제도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한신대학교의 경우를 소개하기로 한다. 한신대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 연구위원회'(강평위)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강평위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에서 단일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필자 개인의 책

임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1. 學生에 의한 敎授講義評價制

강의는 '대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강의를 통해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인류의 지혜를 전달하며, 미래를 여는 꿈을 가꾼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차원 높은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학생들은 돈을 내고 대학에 들어오고, 교수들은 돈을 받고 강의를 한다. 이처럼 강의는 대학이 존립해야 할 이유들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講義의 質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대학은 무엇보다도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의 걸모습을 단장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강의의 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강

의에 관한 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교수에게 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책임이 올바르게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을까? 강의의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강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강의의 현장에는 교수와 학생들밖에 없다. 교수들 스스로도 자신의 강의를 평가할 수는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모든 自體評價가 그렇듯이, 자신의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자체 평가는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고, 적어도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자체 평가의 主觀性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교수 외에 강의의 현장에 있는 다른 주체는 학생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하게 할 수는 없을까?

사실 학생들은 늘 교수들의 강의를 평가해 왔으며 또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어떤 강의는 학점 따기는 쉽지만 내용이 형편없다느니, 어떤 강의는 학점이 짜지만 배우는 것이 많다느니 하는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평가는 옳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평가는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자료는 활용되지 못한 채 유실되어 왔다.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비공식 평가를 公式化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導入 背景 및 目的

오늘날 우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중 첫째가 무엇인냐고 물으면, 너나 없이 ‘재정난’이라고 답할 것이다. 사실 대학(특히 사학)의 재정난은 대단히 심각하다. 교수 총원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많으며, 50% 이상의 강의를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 또는 학과들이 많이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풍토’라고 지적하고 싶다. 우리 대학생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먹고

대학생’들이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대신, 술집이나 카페에서 ‘젊음을 만끽’한다. 강의보다는 학생들끼리의 행사가 더 중요하며, 강단 교육보다는 ‘지하 교육’이나 취직을 위한 토플 공부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강의에 참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학문적 탐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점을 따기 위해서일 뿐이다.

대학생들의 공부 안 하는 풍토는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부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 최고의 지성인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의 방관자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바꿔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학의 걸모습만 바꾸는 데 몰두하였다. ‘대학’ 앞에 ‘일류’, ‘이류’ 등의 수식어가 붙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류 또는 이류로 변해서가 아니라, 일류 또는 이류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즉,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류 또는 이류로 변하는 일이 없었으며, 교육의 공급자로서의 교수들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놓고 속수무책이었다. 교수들은 교육의 주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교수들이 敎育의 主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지난 30여 년간의 시대적 상황에 눈을 돌리고 싶다. 진리와 정의의 구도자로서의 학생들은 물리적 힘으로 허위와 불의를 강요하는 역사에 항거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했으며, 교수들은 그러한 학생들에게 “얌전히 앉아서 공부나 하라.”는 ‘시대착오적인’ 충고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잦은 휴강과 결강이 정당화되었으며, 진행되는 강의마저 강의실 밖의 학생기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감히’ 학생들을 꾸짖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관원도 무서웠지만 쇠파이프를 든 학생들도 무서웠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대학의 질을 높이는 주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

한 일이었다.

·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풍토는 한신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만’ 할 것을 독려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다른 대학의 교수들과 같았다. 게다가 한신대는 교육부(문교부)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대적 상황에 관한 한 교수들은 그래도 학생들 앞에서 몇몇 역할을 하였으며, 바로 이 점이 당국의 눈에 거슬렸고, 당국은 ‘증과·증원 중지’로 보복하였다. 그래서 인근의 신설 대학은 학생수 만여 명에 육박하는 큰 대학으로 키워주면서, 학교 역사 오십 년이 넘는 한신대의 학생수는 겨우 이천오백 명밖에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물러올 것은 분명하며, 1996년경부터 실시 예정인 대학정원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대학들이 존재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한신대학교의 교수들은 ‘대학의 발전’이 대학의 외형적 양적 팽창에 있지 않고 ‘교육의 질적 발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敎育의 質的 發展은 교수들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제 스승이 스승 노릇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이제는 공부하자.”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채근하기 전에 교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다. 교수들이 앞장서서 강의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한신대학교의 교수들은 암울한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용기를 발휘해 왔다. 그래서 이 제도의 채택은 가까이는 학교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멀리는 한국의 대학사회를 오랜 沈滯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큰 충격이 되어, 대학사회 전체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제자들의 ‘채

찍’을 맞기로 한 것이다.

3. 大學內 의견 및 반응

작년 12월 초에 열린 보직교수 퇴수회의에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의 초안이 상정되었을 때, 이틀간에 걸쳐 장장 여덟 시간 정도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교수들 모두가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정리되었다.

①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고, 교수의 강의 스타일이나 교수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경솔한 일이며, 학생들의 평가를 다시 분석·평가하여 강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교수들은 엄격하고 소신 있게 강의하는 대신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고 인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강의가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수들 자신의 문제이지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다.

③ 이 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 재단이나 일부 학생 운동권에서 어떤 특정교수를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④ 현재의 대학 여건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이 무리이다. 최저 9시간을 강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실정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교수들은 연구할 시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대학은 교수들이 강의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도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학교가 질적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수들의 본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학사 행정을 엄격히 시행

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이와 같은 결단이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기왕에 학생들은 강의평가제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參與講義制'라는 이름을 걸고,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강의의 소비자' 자세에서 교수와 함께 능동적으로 강의를 이끌어 가는 '강의의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활동을 이유로 휴강을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학생들은 그동안 강의에 막대한 지장을 준 강의동 앞 '오월계단'의 집회를 장소만 적당하다면 다른 곳에서 열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4. 講義評價書

'강의평가제 연구위원회'에서 아직 어떤 안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시한 안에 의하면 강의평가서는 교수 강의의 내용과 방법을 평가하는 부분과 평가자(학생) 자신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물음들에 대하여 설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1. 강의는 적어도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안그렇다
2. 강의의 내용은
 - ㄱ. (전공과목의 경우) 전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 ㄴ. (교양과목의 경우) 폭넓은 교양을 위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었다.
3. 강의의 내용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유용하리라 생각되는 정보를 담고 있었다.
4. 강의의 내용은 어려웠다.
5. 교수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6. 교수는 강의 내용을 조리 있고 명쾌하게 전달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만족스럽게 답하였다.

7. 강의는 수강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 교수는 학업의욕을 고취시켰다.
9. 교수는 강의 시간을 잘 지켰으며, 교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보강이 되지 않은 휴강 또는 결강이 없었다.
10. 과제물의 분량은 많았다.
 - 가. 일반적으로 나는 학업의욕이 높다.
 - 나. 지금까지 나의 성적 평점은?
 - 다. 이 강의에 관한 한 나의 결강은?
 - 라. 나는 과제물을 철저히 하게 하였다.
 - 마. 내가 이 과목을 위해 일주일 평균 공부한 시간은?
 - 바. 내가 기대하는 이 과목의 성적은?
 - 사. 나는 이 강의물 통해 지적으로 성장하였다.
 - 아. 기타 꼭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강자 자신에 대한 평가 부분은 교수 강의에 대한 학생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학업 자세를 반성해 보도록 하는 부차적인 교육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5. 實施方法 및 節次

이 제도는 한신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 가. 이 제도는 1993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나. 이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강의평가제 연구위원회'(강평위)를 설치·운영한다(이 연구위원회에서는, 예컨대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몇 종류의 강의평가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교수(강사)들은 한 학기 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교무처는 모든 강의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 각 학과에 배포함으로써 학생들이 강좌의 성격, 담당교수(강사), 교재, 강의방법 등을 미리 알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강평위는 몇 종류의 강의평가서를 개발한다.

다. 교무처는 강의평가서를 복사(인쇄)하여 교수들에게 배부한다.

바. 교수(강사)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강의평가서를 선택하여 종강 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사. 강의평가서의 종합·분석·평가 등은 이 제도 시행 첫 해에 한하여 교수 자신이 하도록 한다. 단, 강사들에 대한 강의평가서의 종합·분석·평가는 교무처에서 한다. 또한 교수들은 강의평가서의 종합 결과를 익명으로 강평위에 제출하여, 이 제도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의 시범 시행 후 이 제도의 시행을 누가 어디서 주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993년도 겨울 보직교수 퇴수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아. 교수는 강의평가서에 반영된 학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필요하다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6. 實施效果 및 향후 計劃

이 제도가 학교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제도의 실시 효과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펴고 싶다. 실시 첫 학기인 이번 학기에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강의 준비가 벅차다는 고백을 해 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강의 노트를 세심스럽게 다시 작성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강의의 내용과 전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수들은 강의평가제 때문에 “누워서 떡먹던 시절은 갔다.”는 전혀 과장만은 아닌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적어도 교수들에 관한 한 이 제도의 성공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

생이 따라 주지 않으면 이 제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과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교수들은 제자들을 매질하는 대신 스스로를 매질하면서, 제자들도 오렌지_방황과 태만에 증지부름 적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대학 생활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교수들의 충정 어린 뜻에 따르지 않고, 계속 ‘먹고 대학생’으로 남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필자는 학생들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기적 존재라는 데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學習動機를 부여해야 한다. 학습동기만 부여되면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교사를 지내더라도 공부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대학교육제도는 원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박탈하는 점이다.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학교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가 될 계획도 없고 소질도 없는 학생들에게 학자 교육을 시킨다. 현행 대학교육은 학생중심교육이 아니라 교수중심교육인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는 ‘비현실적인’ 전공과목들을 공부해야 한다. 경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 총쏘는 연습 대신 제식훈련만 받는 격이다. 그러는 가운데 학생들은 현행 강단교육의 수혜자 아닌 희생자가 되며 대학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들러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학생들이 느끼지 못할 리 없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동기를 상실하는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학습동기를 박탈하는 이러한 현행 대학제도의 개선 없이는 강의평가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강의평가제의 성공 없이 대학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의평가제의 실시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제도가 크게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